

IAAF, 22~25일 세계육상대회 대구실사

실사단 환영행사등 시민 유치열기 전달

관련기사 19면

국제육상연맹(IAAF)이 22-25일 2011년 대구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인다.

단장인 헬무트 디젤(독일) IAAF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이사 3명과 피에르 바이스(프랑스) IAAF 사무총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평가단은 23일 대회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과 선수촌, 총회 장소인 대구엑스코, 본

부 호텔인 인터불고호텔 등을 살펴보고 24일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.

실사단은 대구의 사회·경제적 상황과 도시 접근성, 정부의 지원, 육상 문화와 경험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. 또 대회 인프라, 안전, 재정, 수송,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.

따라서 대구시는 실사단이 입국하는 22일 인천공항에서 환영단을 구성해 영접하고 시내 곳곳에 배너

기와 꽃탑등을 설치하고 대구시생 활체육협의회와 교육청, 시민들의 협조로 주 경기장을 비롯해 실사단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환영행사와 육상 관련 행사등을 가지며 대구 시민들의 대회유치 열기를 전달한다.

IAAF는 실사 한 달여 후인 다음달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집행이사회(28명)를 열어 2011년 및 2013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할 방침이다.

한편 IAAF는 대륙별 교차원칙에 따라 2011년 대회는 아시아권, 2013년 대회는 유럽권을 각각 결정할 예정이다. 2011년 대회는 대구와 호주 브리즈번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.

이근영기자

gylee@idaegu.com